

www.medhist.or.kr

기본의학교육 의사학 학습성과



SINCE 1947.4.30

대한의사학회

大韓醫史學會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학회 회장 박윤재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025년 1월까지 향후 한국의 의료가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발표를 한 이후 전공의들의 파업과 사직 그리고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큰 변화 없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현직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한 지금 새로운 변화의 계기마저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5년 대학 입시가 마무리되면서 하나의 매듭은 지어질 것 같습니다.

2년째 이어지는 이 상황과 관련하여 앞으로 배경과 계기, 과정, 결과에 대한 천착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의 타당성, 증원에 대한 의사계의 대응,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의 여부 등 천착해야 할 대상은 적지 않습니다. 그 천착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천착이 넓고 깊게 이루어진다면 한국에 더 좋은 의료를 만드는데 훌륭한 자양분의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든 의학교육과 관련하여 하나 분명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학교육이 단순히 의학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이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학교육을 통해 양성된 의사들은 질병을 넘어 환자, 나아가 사회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회는 여러 가치와 지향들이 충돌하는 공간이고, 인간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한, 조정과 협의가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의학교육은 의대생을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구성원이 의료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즉 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의학교육의 역할은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대한의사학회에서 발간하는 ‘기본의학교육 의사학 학습성과집’은 의료의 역사에 대한 공부를 통해 의대생들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혜로운 의사가 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의대생들은 의료가 형성되고 활용된 역사,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조율, 새로운 발견과 성취가 가진 의미 등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만나게 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갈피를 잡고 최선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의사가 양산되면서 우리 사회도 함께 지혜로워지리라 기대합니다.

이 ‘기본의학교육 의사학 학습성과집’ 출간은 대한의사학회 내에 설치된 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김택중 선생님이 위원장님을 맡아주셨고 박승만, 박지영, 정준호, 최은경 선생님이 함께 수고해주셨습니다. 모두 현재 의학교육에 참가하고 계시고, 따라서 의사학의 현실 교육 적용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이 ‘기본의학교육 의사학 학습성과집’에 모아졌습니다. 교육과 연구로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의사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한 특별위원회의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대한의사학회는 학습성과집 발간 이후 의사학 교과서를 위한 준비를 시작할 것입니다. 의학교육에 활용할 교과서가 발간되어야 의사학이 위에서 말씀드린 지혜로운 의사 양성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작업에 현재 의과대학에서 의사학을 교육하시는 여러 선생님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 선생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대한의사학회 회장 **박 윤 재**

머리말

의학의 주체인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의학교육은 의학을 둘러싼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다. 다시 얘기하면 사회상의 변동이라는 시대적 요청이 의학교육에 계속 압력을 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1세기 들어 한국의 기본의학교육이 급속히 바뀐 것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적응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역량바탕교육’이 자리하고 있다.

역량바탕교육은 교육이 사전 결정된 역량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는 가정을 공유한다. 그간 국내외에서 역량 및 역량바탕교육이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정은 한국의 의학교육계에 사실상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었다. 나아가 2010년부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및 규정』에 ‘학습성과’와 ‘졸업성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역량바탕교육은 ‘성과’라는 이름으로 강제화되기에 이르렀다.

이 학습성과집은 이러한 역량바탕교육의 산물이다. 그 이론적 기원을 확인해 보면 1910년대 미국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역량바탕교육이 의학교육에 본격적으로 수용된 시기는 불과 사반세기 전이다. 이 짧은 기간 사이 역량바탕교육은 의학교육의 세계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역량을 바탕으로 성과가 나타난다는 교육학적 전제는 학습성과라는 개념을 중요한 교육학적 위치에 올려놓았다. 국내에서도 기본의학교육 분야에서 계속해서 여러 학습성과집이 발간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록 역량바탕교육이 직업교육과 훈련에 적합한 교육 체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전문직 수행 능력에 통합적으로 내재해 있는 의사의 역량을 기본의학교육에서 가르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더욱이 개념의 모호성과 혼란, 행동주의적 환원성, 직무 중심성 등의 성격으로 인해 의사학과 같은 의료인문학 교육의 소임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한계를 아울러 안고 있다. 역량바탕교육의 출발지인 미국에서도 의사학계 내부에서 이러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주류화된 역량바탕교육에 비판적으로 개입하고 그 속에서 의사학 교육의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절박감 속에서 대한의사학회는 지난 2019년부터 의사학 학습성과집 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였고, 이를 위해 2021년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2023년 교육위원회 내에 특별위원회로서 학습성과 개발 위원회를 두고 기본의학교육 의사학 학습성과 개발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만 2년 만에 교육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개발을 완료하였고 이제 배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학습성과집은 활용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17년 한국외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개발한 『기본의학교육 학습성과: 사람과 사회 중심』의 체제를 준용하고 보완하였다. 모쪼록 이 학습성과집이 의사학뿐 아니라 의과대학 내 의료인문학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아울러 역량바탕교육의 교육학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25년 1월

대한의사학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택중**

위원 명 단

대한의사학회 교육위원회

공혜정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권복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김신권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김원중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김정아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김택중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위원장)

김형진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류영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박승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박영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지영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송창호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신규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양은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여인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병일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유상호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이규원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이승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현숙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임영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준호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최규진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최은경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황임경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대한의사학회 기본의학교육 의사학 학습성과 개발 위원회

김택중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위원장)

박승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박지영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정준호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최은경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목 차

인사말	i
머리말	iii
위원 명단	v

기본의학교육 의사학 학습성과

I 들어가며	1
II 영역별 최종학습성과 및 실행학습목표	2
III 최종학습성과 및 실행학습목표 해설	4
IV 강의안 구성 예시	24
참고문헌	46

I. 들어가며

본 ‘기본의학교육 의사학 학습성과’(이하, ‘학습성과’)는 각 의과대학이 의사학을 교육과정에서 다룰 때 어떠한 학습성과를 염두에 두고 교과과정을 편성할 것인지 계획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습성과’는 기본적으로 의과대학 학부 학생이 졸업할 때 도달해야 할 바람직한 역량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모든 학교가 본 학습성과 전체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각 학교의 주안점에 맞추어 ‘학습성과’에 제시된 영역과 내용을 적절히 바꾸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의사학을 교육할 때 일종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 ‘학습성과’ 발간의 목표이다.

‘학습성과’는 전통적인 의사학의 주제에 따라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1) 역사 속의 질병과 환자, 2) 의사의 역사와 전문직업성, 3) 의학 지식과 실천의 역사, 4) 역사 속의 의료시스템, 5) 한국 근현대의학사 및 지역의료사 등 5가지로 영역을 구분하고 최종학습성과와 세부학습목표를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각 학습목표마다 해설을 달아 의사학 전공자뿐 아니라 의사학 강의를 담당하는 비전공자 또는 준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뿐 아니라 학습목표별 참고자료와 영역에 따른 강의안 예시를 제시하여 ‘학습성과’의 활용도를 높였다.

주제별로 살펴보면, ‘역사 속의 질병과 환자’는 질병과 환자를, ‘의사의 역사와 전문직업성’은 의사와 그 밖의 치유자를, ‘의학 지식과 실천의 역사’는 전통적인 의학 발전사와 함께 질병관 및 진료행위의 변화를 다룬다. ‘역사 속의 의료시스템’은 병원, 보건복지제도, 의학교육 등 사회 제도의 변화 내용을 다루며 ‘한국 근현대의학사 및 지역의료사’는 한국 보건의료의 역사를 다룬다. ‘한국 근현대의학사 및 지역의료사’ 중 지역의료사는 각 의과대학의 사회적 책무로 간주되고 있는 ‘지역사회에의 기여’를 염두에 두고 작성하였다.

‘한국 근현대의학사 및 지역의료사’를 제외한 영역들은 부분적으로 서로 중복되거나 겹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각 영역의 구획은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의 구성 요소-질병과 환자, 의사(의료인), 의료 지식 및 행위, 보건의료 제도-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러한 주제 구분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사 교과서들의 용례를 따른 것이다. 나아가, 그간 국내 의과대학에서 실시되어 온 의사학 교육 내용이 이들 영역에 포괄될 수 있도록 하였다.

II. 영역별 최종학습성과 및 실행학습목표

영역	항목	내용
[영역 1] 역사 속의 질병과 환자	최종학습성과	질병과 장애가 야기하는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자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다. 생로병사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존중하면서 의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실행학습목표	질병과 장애 인식의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환자 고통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다. 특히, 질병에 대한 역사적 낙인과 차별을 인지하고 의사로서 바람직하게 대응할 수 있다.
		생로병사 관념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질병 대응의 주체에 따른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진료에 적용할 수 있다.
		역사 속에서 질병과 건강에 관여하는 구조적 요인의 변화를 이해하고, 의학 기술의 발전, 질병 부담 간의 상호작용과 그 변동을 설명할 수 있다.
		질병 유행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통해 환자, 생태, 병원체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다.
[영역 2] 의사의 역사와 전문직업성	최종학습성과	전문직으로서 의사의 성장 과정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의 사회적 책무성을 발현할 수 있다.
	실행학습목표	면허제도의 성립 과정을 통해 의사, 국가, 사회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의사-사회 관계의 역사적 변천을 통해 의사가 수행해 온 다양한 역할을 이해한다.
		의사와 다른 직종의 치유자 사이의 역사적 관계를 통해 의사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가변성을 이해할 수 있다.

영역	항목	내용
[영역 3] 의학 지식과 실천의 역사	최종학습성과	의학 지식과 기술이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형성, 변화했음을 이해하고,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의학 지식과 기술의 변동을 가능할 수 있다.
	실행학습목표	역사적으로 등장한 다양한 의학 지식에 내재된 신체관과 질병관의 변화상을 설명할 수 있다. 특히, 해부병리학적 질병관과 생리학적 질병관의 형성 과정, 의의,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의학 지식의 역사적 발전과 그에 영향을 준 사회적 요소와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다.
		생의학(biomedicine)의 사회적 특징과 의의,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진료 도구 및 의과학 기술의 등장과 발전의 역사·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의료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영역 4] 역사 속의 의료시스템	최종학습성과	병원과 의료제도 등 보건의료 체계를 둘러싼 사회의 역사적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체계의 변화를 가능할 수 있다.
	실행학습목표	의료기관, 의료 제공 및 이용 양상의 역사적 변천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가능할 수 있다.
		의약품 관리, 공중보건, 의료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보건복지 제도의 역사적 등장과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의학 연구 및 교육 제도의 역사적 변천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가능할 수 있다.
		사회, 국가, 시장, 의료인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역사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영역 5] 한국 근현대의학사 및 지역의료사	최종학습성과	한국 의료의 역사적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실행학습목표	한국 전통 사회의 의료를 이해하고, 특징과 유산을 설명할 수 있다.
		서양의학 도입 과정을 이해하고, 특징과 유산을 설명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가 한국 의학에 남긴 상흔과 과제를 설명할 수 있다.
		해방 이후 한국 의료의 변화를 이해하고, 해결 과제와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지역, 계층, 성별 등에 따른 건강 및 의료 이용 양상의 역사적 변천을 이해하고, 해결 과제와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자신이 속한 교육 및 의료기관의 역사를 이해하고, 역할과 바람직한 방향을 설명할 수 있다.

Ⅲ. 최종학습성과 및 실행학습목표 해설

영역 1: 역사 속의 질병과 환자

○ 최종학습성과

- (1) 질병과 장애가 야기하는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자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다. 생로병사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존중하면서 의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해설: 질병과 장애는 생물학적 현상인 동시에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그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은 상호작용하며 개인과 사회가 신체와 건강을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왔다. 각각의 사회는 고유한 질병과 장애의 경험을 가지므로, 과거 해당 사회가 경험한 질병과 장애의 역사적 궤적을 이해하는 것은 현재의 건강과 질병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학습자는 질병과 사회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거시적으로 살피면서 환자들이 경험하는 질병과 장애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 고통을 동반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이해에 기반한 공감을 진료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실행학습목표

- (1) 질병과 장애 인식의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환자 고통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다. 특히, 질병에 대한 역사적 낙인과 차별을 인지하고 의사로서 바람직하게 대응할 수 있다.

해설: 질병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특정 집단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동반해 왔다. 의학은 정상과 비정상을 규정하여 질병과 장애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강화해 오기도 했으나 동시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기도 했다. 학습자는 페스트, 결핵, 콜레라, HIV/AIDS 등 역사 속 주요 질병과 장애의 사례들을 기반으로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였는지, 또한 그러한

경험과 인식이 어떻게 낙인과 차별로 이어졌는지를 역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낙인과 차별이 치료 결과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진료 과정 중 환자가 경험하는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고통에 공감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김재형, 질병, 낙인: 무균사회와 한센인의 강제격리, 돌베개, 2021.
- 낸시 톰스 저, 이춘업 역, 세균의 복음: 1870~1930년 미국 공중보건의 역사, 푸른역사, 2019.
- 로이 리처드 그린커 저, 정해영 역, 정상은 없다: 문화는 어떻게 비정상의 낙인을 만들어내는가, 메멘토, 2022.
- 사이먼 자렛 저, 최이현 역, 백치라 불린 사람들: 지능과 관념·법·문화·인종 담론이 미친 지적 장애의 역사, 생각이음, 2022.
- 서보경, 휘말린 날들: HIV, 감염 그리고 질병과 함께 미래 짓기, 살림, 2007.
- 수전 손택 저, 이재원 역, 은유로서의 질병, 이후, 2002.
- 수전 캠벨 바틀레티, 광명단 역, 위험한 요리사 메리, 돌베개, 2018.
- 에드워드 쇼터, 최보문 역, 정신의학의 역사: 광인의 수용소에서 프로작의 시대까지, 바다출판사, 2020.
- Charles E. Rosenberg, *The Cholera Years: the United States in 1832, 1849, and 1866*,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2) 생로병사 관념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질병 대응의 주체에 따른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진료에 적용할 수 있다.

해설: 사람들은 질병과 장애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과 실천들을 개발해 왔으며, 이에 따라 질병과 장애의 정의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해 왔다. 생로병사의 관념이 변화해 오며 따라 질병에 대한 사회적, 의학적 대응과 이해 역시 변화해 왔다. 학습자는 생로병사에 대한 현재의 관점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또한 다양한 문화권과 사회 속에서 유동적이며 다양하게 존재해 왔음을 이해한다.

□ 참고자료

- 신동원, 호환 마마 천연두: 병의 일상 개념사, 돌베개, 2013.
- 킴 닐슨 저, 김승섭 역, 장애의 역사: 침묵과 고립에 맞서 빼앗긴 몸을 되찾는 투쟁의 연대기, 동아시아, 2020.
- Charles E. Rosenberg and Janet Golden, "Framing Disease: Illness, Society and History," *Framing Disease: Studies in Cultural History*, Rutgers University Press, 1992, pp. xiii- xxvi.

- Ruth Rogasky, *Hygienic Modernity: Meanings of Health and Disease in Treaty-Port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 Owsei Temkin, "The Scientific Approach to Disease: Specific Entity and Individual Sickness," *The Double Face of Janus and Other Essays in the History of Medicin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7, pp. 441-455.

(3) 역사 속에서 질병과 건강에 관여하는 구조적 요인의 변화를 이해하고, 의학 기술의 발전, 질병 부담 간의 상호작용과 그 변동을 설명할 수 있다.

해설: 사회구조적 요인의 변화는 질병과 건강의 관계를 변화시켜 왔다. 특히 20세기 이후 나타난 의과학 기술의 발전은 인간 생로병사의 양상을 급격히 변화시켰다. 역사적으로 질병은 사회 변화를 추동해 온 주요한 요인 중 하나였으나, 현대에 접어들어 나타난 의과학 기술의 발전, 사회경제적 변화는 급성감염병에서 만성병으로의 급격한 역학적 변천을 불러왔다. 의학은 두 창과 같은 질병을 박멸하는 데에 성공하였으나, 세계화에 따른 신종감염병의 유행과 같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항생제 저항성과 같이 의과학 기술이 가지는 본질적인 한계는 인구 집단의 건강 향상에 의학이 기여한 정도를 비판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는 근현대 질병 부담의 변천과 사회, 정치, 경제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거시적으로 살펴 역사적 관점에서 의학의 성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구집단의 건강과 그에 대한 의학의 역할과 대응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참고자료

- 마이크 데이비스 저, 정병선 역, 조류독감: 전염병의 사회적 생산, 돌베개, 2008.
- 마크 호닉스바움 저, 제효영 역, 대유행병의 시대: 스페인독감부터 코로나19까지, 전 세계 전염병의 역사, 로크미디어, 2020.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역사문화원, 역사 속의 질병, 사회 속의 질병, 솔빛길, 2015.
- 제레미 그린 저, 김명진, 김준수 역, 숫자, 의학을 지배하다: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과 제약산업의 사회사, 뿌리와이파리, 2019.
- 토마스 매큐언 저, 손명세, 정상혁 역, 의학의 한계와 새로운 가능성, 한울, 2003.
- Randol M. Packard, *The Making of a Tropical Disease: A Short History of Malaria*,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7.
- William Johnston, *The Modern Epidemic: A History of Tuberculosis in Japan*,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1995.

(4) 질병 유행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통해 환자, 생태, 병원체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다.

해설: 역사적 시기에 따라 질병의 유행 양상은 계속 변화해 왔다. 특정 시기와 사회가 경험하는 질병의 변화는 의학과 같은 질병 대응 양상과 함께 인구구조, 산업과 같은 거시적 사회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인간의 생활환경, 즉 생태적 조건의 변천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수렵채집 시기부터 현대 사회까지 인류 문명의 물질적 기반의 변화는 인간과 병원체가 맺는 생태적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륙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며 질병의 세계화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대륙 간 질병의 교류는 대규모 인구집단에 영향을 미치며 인류 문명과 생태계의 지구적 변화를 일으켰다. 학습자는 생태적 조건의 변화와 더불어 일어난 질병 유행 양상의 변화를 문명사적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바탕으로 질병과 장애의 유행 양상을 지구라는 공간적 범위에서 장기적으로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

□ 참고자료

- 대니얼 헤드릭 저, 김우민 역, 과학기술과 제국주의: 증기선, 키니네, 기관총, 모티브북, 2013.
- 대한감염학회, 한국전염병사, 군자출판사, 2018.
- 마크 해리슨 저, 이영석 역, 전염병, 역사를 흔들다, 푸른역사, 2020.
- 셸던 와츠 저, 태경섭, 한창호 역, 전염병과 역사: 제국은 어떻게 전염병을 유행시켰는가, 모티브북, 2009.
- 윌리엄 맥닐 저, 김우영 역, 전염병의 세계사, 이산, 2005.
- 프랭크 스노든 저, 이미경, 홍수연 역, 감염병과 사회: 페스트에서 코로나19까지, 문학사상, 2021.
- 프레데릭 F. 카트라이트, 마이클 비디스 저, 김훈 역, 질병의 역사, 가람기획, 2004.

영역 2: 의사의 역사와 전문직업성

○ 최종학습성과

- (1) 전문직으로서 의사의 성장 과정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의 사회적 책무를 발현할 수 있다.

해설: 현대 사회에서 전문직으로서 의사의 역할과 지위는 단순히 생명을 다루는 일의 도덕적 고결함이나 높은 학문적 성취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거 의사들의 노력과 사회의 요구가 낳은 결실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의사들은 의료에 종사하는 다른 직업군과 경쟁하며 사회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자질을 검증·향상하는 체계를 확립했다. 학습자는 의사가 전문직으로서 성장해 온 역사적 과정을 탐구함으로써 의사와 사회, 의사와 타 보건의료 직종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직업성을 보호·개발하는 데 필요한 요건과 사회적 책무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 실행학습목표

- (1) 면허제도의 성립 과정을 통해 의사, 국가, 사회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해설: 면허제도는 의사라는 직업의 전문가로서 역할과 지위를 구성하는 중요한 토대 중 하나이다. 면허제도는 전문가 집단의 스스로의 역량과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수립한 제도인 동시에 해당 직업에 대한 독점적 권리와 책임을 정부로부터 부여받는 장치이다. 여기에서 자질, 권리, 책임의 기준은 면허제도가 만들어진 당시 사회의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요구의 영향을 받은 역사적 산물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의 전문가적 지위와 역할을 유지·개선하기 위해서는 면허제도의 성립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학습자는 면허라는 제도를 획득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의사들이 진료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받는 대가로 수행하게 된 사회적 책무와 그것을 준수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참고자료

- 김근배,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의사되기, 의사학 23-3, 2014.
- 박윤재, 한국현대대의료사, 들녘, 2021.

- 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편, 동아시아 역사 속의 의사들, 역사공간, 2015.
- 폴 스타 저, 이종찬 역, 의학, 정치 돈-미국 의료의 역사사회학, 한울, 2023.
- 토마스 네빌 보너 저, 권복규, 최은경, 윤현배, 정한나 역, 의사 만들기, 청년의사, 2024.
- Kenneth M. Ludmerer, *Learning to Heal: The Development of American Medical Educati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5.

(2) 의사-사회 관계의 역사적 변천을 통해 의사가 수행해 온 다양한 역할을 이해한다.

해설: 환자 진료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의사의 전통적 역할은 근대에 접어들면서 다변화했다. 인구 관리라는 새로운 임무를 자처한 근대 국가는 의사를 그 임무의 실제적 담당자로 도입했고, 의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의사에게는 과학적 지식을 생산하는 연구자로서의 역할 또한 주어졌다. 그에 따라 의사의 활동 범위는 진료실을 넘어 공중보건과 사회복지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됐다. 학습자는 근대 이래 의사가 주도해 온 여러 정책과 사업들을 살펴보고, 그럼으로써 의사 과학자, 지역사회 보건의 리더, 보건의료 활동가 등 의사의 역할이 시대에 따라 변화 가능하며 더 넓은 사회적 기능을 포괄해 오고 있음을 인지한다.

□ 참고자료

- 강신익, 신동원, 여인석, 황상익, 의학 오디세이, 역사비평사, 2007.
- 리처드 H. 슈라이옥 저, 이재담 역, 근세 서양의학사: 그 과학적, 사회적 요인들의 해석, 위드, 1999.
- 에르빈 H. 아커크네히트 저, 김주희 역, 간추린 서양 의학사, 모티브북, 2022.
- 윌리엄 F. 바이넨 저, 박승만 역, 서양의학사, 교유서가, 2017.
- 조지 로젠 저, 이종찬, 김관욱 역, 보건과 문명, 몸과마음, 2009.
- Andrew Cunningham and Perry Williams eds., *The Laboratory Revolution in Medici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Lawrence I. Conrad, Michael Neve, Vivian Nutton, Roy Porter, Andrew Wear, *The Western Medical Tradition: 800 BC to AD 1800*,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William F. Bynum, Anne Hardy, Stephen Jacyna, Christopher Lawrence, E. M. Tansey, *The Western Medical Tradition: 1800-2000*,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3) 의사와 다른 직종의 치유자 사이의 역사적 관계를 통해 의사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가변성을 이해할 수 있다.

해설: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은 의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간호사, 한의사, 약사 등 다른 여러 직종이 이 분야에 관여하고 있다. 특히 환자 중심적 진료를 위해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직종 간 협력적 관계가 중시되고 있다. 각 직종은 현대 의료체계에서 나름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그들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 경쟁과 갈등을 포함한 복잡한 양상을 띤다. 직역 간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영역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 곳에서의 역할과 위계 구분은 직종들 사이의 타협과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그 과정에는 각 직종이 자임해 온 사회적 역할과 이해관계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의사가 다른 직종들과 협력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과거부터 맺어 온 상호 관계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필요하며, 특히 다른 직종들이 추구해 온 역할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는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와 타 직종 사이의 바람직한 역할 조율과 상호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탐구한다.

□ 참고자료

- 레이샹린 저. 박승만 외 역, 비러비마: 중국의 근대성과 의학, 인다, 2021.
- 박승만, 어느 시골 농부의 ‘반의사’(半醫師) 되기: 『대곡일기』로 본 1960-80년대 농촌 의료, 의사학 27-3, 2018.
- 사토 노리코, 신지혜, 유연실 등, 역사 속의 산파와 조산사, 모시는사람들, 2023.
- 양정필, 한말-일제 초 근대적 약업 환경과 한약업자의 대응: ‘매약’ 제조업자의 등장과 성장을 중심으로, 의사학 15-2, 2006.
- 여인석 등, 한국의학사, 역사공간, 2018.
- 이꽃메, 한국근대간호사, 한울, 2002.
- 전우용, 현대인의 탄생: 해방~한국전쟁기 한국인의 질병과 위생, 의료, 이순 웅지썩크빅, 2011.
- 토마스 네빌 보너 저, 유은실 역, 여의사의 역사, 한울, 1996.
- James Harvey Young, *The Medical Messiahs: A Social History of Health Quackery in 20th Century America*,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5.
- Sonja M. Kim, *Imperatives of Care: Women and Medicine in Colonial Korea*,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9.

영역 3: 의학 지식과 실천의 역사

○ 최종학습성과

- (1) 의학 지식과 기술이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형성, 변화했음을 이해하고,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의학 지식과 기술의 변동을 가늠할 수 있다.

해설: 고대 의학부터 현대 의생명과학에 이르기까지 의학 지식과 기술은 당대의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탄생했으며, 과학적 행위에 따른 산물로서 지식과 기술이 구성된다. 예를 들어 같은 명칭의 질병(예: 매독)이라도 그것이 지칭하는 바는 시대에 따라 다르고, 질병과 건강의 패러다임 또한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새로운 의학 지식의 발견 역시 당대의 시대적 조건과 각종 문화와 문명 간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다. 고대로부터 어떤 약의 효능이 알려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임상 현장의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현대 사회에 이르러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구현되었기 때문이다. 학습자는 새로운 의학 지식의 발견과 발전이 당연한 내재적 과정이라기보다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과 교류하면서 구성되었음을 이해한다. 인접 학문의 발전, 병원이나 실험실 등 지식 생산 기반의 축적, 국가 간 및 문명 간 교류, 사회적 수용 정도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음을 살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질병과 건강 패러다임, 의학 지식과 기술 역시 사회 변동에 따라 변모할 수 있음을 숙고한다.

○ 실행학습목표

- (1) 역사적으로 등장한 다양한 의학 지식에 내재된 신체관과 질병관의 변화상을 설명할 수 있다. 특히, 해부병리학적 질병관과 생리학적 질병관의 형성 과정, 의의,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해설: 역사 속의 의학 지식들은 의학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신체관과 질병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당대의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은유 역시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질병을 가졌다’는 것과 ‘아프다’는 당대의 사회적 질서와 떨어뜨려 사고하기 어렵다. 이는 질병관과 신체관을 둘러싼 사회적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암시한다.

학습자들은 신체관과 질병관이 역사적으로 다양한 사회 질서의 배경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학습한다. 예를 들어 근대과학이 발전하면서 형성된 마음-신체 이원론은 기계적 신체관으로 연

결되었다. 또한 고대 의학은 개별화된 신체 내 요소의 균형이 깨진 것으로 질병을 이해했다면 실험실과 병원을 바탕으로 근대의학이 수립되면서 질병을 국소화하는 해부병리학적 질병관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질병관의 차이 중 하나이다. 이러한 역사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은 오늘날 현대의학에서 보다 다양한 질병관과 건강관이 요청받고 있음을 인식한다. 그리고 현대사회에 적절하고도 바람직한 질병관 및 건강관이 무엇인지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 참고자료

- 조르주 캉길렘 저, 여인석 역,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 그린비, 2018.
- 미셸 푸코 저, 홍성민 역, 임상의학의 탄생, 이매진, 2006.
- 여인석, 의학사상사, 살림, 2007.
- 피터 콘래드 저, 정준호 역, 어쩌다 우리는 환자가 되었나: 탈모, ADHD, 갱년기의 사회학, 후마니타스, 2018.
- Arthur L. Caplan, Hugo Tristram Engelhardt(Jr.), James J. McCartney eds., *Concepts of Health and Disease: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Addison-Wesley, 1981.
- Charles E. Rosenberg and Janet Lynne Golden eds., *Framing Disease: Studies in Cultural History*, Rutgers University Press, 1992.
- Erwin H. Ackerknecht, *Medicine at the Paris Hospital, 1794-1848*,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7.
- Jacalyn Duffin, *Lovers and Livers: Disease Concepts in History*,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5.

(2) 의학 지식의 역사적 발전과 그에 영향을 준 사회적 요소와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다.

해설: 전통적인 의학사 주제라 할 수 있는 르네상스 해부학, 파리의 임상의학, 실험실의학, 제국주의 의학 등 당대를 풍미한 의학 지식 발전에 대한 기초적인 학습을 통해 현대의학 발전의 지적 기반을 이해한다. 현대의학 수립의 배경이 된 해부병리 및 실험의학, 역학 등의 발전은 당대의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을 배경으로 하며, 인접 과학 학문들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학습자는 이들 의과학 지식 발전의 전기가 된 사건들과 그 역사 사회적 배경을 학습함으로써 의과학 지식의 사회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참고자료

- 리차드 H. 슈라이옥 저, 이재담 역, 근세 서양의학사: 그 과학적, 사회적 요인들의 해석, 위드, 1999.
- 앤드류 그레고리 저, 박은주 역, 과학혁명과 바로크문화, 몸과마음, 2021.
- 에르빈 H. 아커크네히트 저, 김주희 역, 간추린 서양 의학사, 모티브북, 2022.
- 윌리엄 F. 바이넵 저, 박승만 역, 서양의학사, 교유서가, 2017.
- 찰스 싱어 저, 고기석, 김형태, 김희진 등역, 해부학의 역사: 고대 그리스에서 하비시대까지, 대한해부학회, 2010.
- Lawrence I. Conrad, Michael Neve, Vivian Nutton, Roy Porter, Andrew Wear, *The Western Medical Tradition: 800 BC to AD 1800*,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Roger French, *William Harvey's Natural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3) 생의학(biomedicine)의 사회적 특징과 의의,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해설: 현대의학의 주류는 생의학으로서 건강 현상은 물리적/생화학적 단위와 정의로 설명될 수 있다고 믿는다. 건강/생명 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실험실 테크놀로지가 필수적이라고 보며, 질병은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현상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의학의 확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도자본주의를 배경으로 한 의과학연구 투자와 산업화, 도시화, 글로벌화를 주요한 배경으로 하며, 의과학연구와 지식생산의 글로벌화와 분과화를 추동하는 동력이 된다. 그러나 한편 생의학의 지나친 환원주의적 입장은 환자 개개인의 총체성과 개별성을 보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현대의학 속에서 환자를 소외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학습자는 현대 사회 경제 체제 속에서 생의학이 지니는 특징과 의의를 이해하고 환자의 총체성을 강조하거나 건강의 사회경제적 환경적 요소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이에 대한 어떠한 비판이 가능할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참고자료

- 김환석, '의료화'에서 '생의료화'로: 정신장애의 사례, 과학기술학연구 14-1, 2014.
- 낸시 톰스 저, 이춘입 역, 세균의 복음: 1870~1930년 미국 공중보건의 역사, 푸른역사, 2019.
- 사라 네틀턴 저, 조효제 역,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 한울, 2007.
- 제임스 마킵 저, 김준혁 역, 의철학입문, 씨아이알, 2023.
- Nicholas D. Jewson, "The Disappearance of the Sick-man from Medical Cosmology, 1770-1870," *Sociology* 10-2, 1976, pp. 225-244.

(4) 진료 도구 및 의과학 기술의 등장과 발전의 역사·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의료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해설: 의과학 지식뿐 아니라 청진기, 백신 등 새로운 진료 도구 및 의과학 기술은 진료의 풍경과 의학 발전의 경로를 바꾸었다. 이들 도구는 의과학 지식 축적과는 독립적으로 발견되어 효과를 입증하며 의학 내에 수용되기도 하였고, 당대의 개발 노력에 힘입어 확립되기도 하였다. 학습자들은 진료 도구 및 의과학 기술이 등장하고 발전, 의학 내에 수용된 역사·사회적 맥락을 학습함으로써 이들 도구나 기술이 의학 내에 사용되기까지 다양한 네트워크와 기반들이 작동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진료 도구 및 의과학 기술이 당대 의료를 어떻게 바꾸었고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 참고자료

- 여인석 등, *약의 인문학, 역사공간*, 2022.
- Audrey B. Davis, "Life Insurance and the Physical Examination: A Chapter in the Rise of American Medical Technology,"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55-3, 1981, pp. 392-406.
- Audrey B. Davis, *Medicine and Its Technology: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Medical Instrumentation*, Greenwood Press, 1981.
- Stanley J. Reiser, *Medicine and the Reign of Techn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 Helen Tilley, *Africa as a Living Laboratory: Empire, Development, and the Problem of Scientific Knowledge, 1870-1950*,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1.

영역 4: 역사 속의 의료시스템

○ 최종학습성과

- (1) 병원과 의료제도 등 보건의료 체계를 둘러싼 사회의 역사적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체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

해설: 현대 사회의 익숙한 의료제도, 이를테면 병원과 보험제도, 보건복지행정 등도 시대의 산물이다. 병원은 고대부터 박애와 돌봄의 장소로 존재해 왔으나 임상의학 발전과 더불어 근대 의학 교육 및 연구의 중심지로 발전하였으며 오늘날에는 최첨단 의료기술이 집약된 장소로 탈바꿈하였다. 또한 정부가 인구의 건강을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탄생하면서 의료서비스를 규율하는 국가 시스템이 자리잡는 한편 통치 이념으로서의 보건위생이 발전하였다. 주요한 과거 빈곤층에 대한 구휼에서 현대사회 복지로의 변화 역시 의료서비스 제공의 양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학습자는 보건의료를 둘러싼 각종 기관과 제도의 역사 속에서 의료와 사회가 맺어온 불가분의 관계와 그 결정 요인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 즉 정치경제적 변화 뿐 아니라 문화, 이념, 종교, 환경적 요소들이 각 시대의 보건의료 제공과 관련을 맺어온 점을 이해한다. 이를 통해 현대 사회의 익숙한 각종 의료제도 또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변화 방향에 대한 안목을 배양한다.

○ 실행학습목표

- (1) 의료기관, 의료 제공 및 이용 양상의 역사적 변천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

해설: '의사의 역사와 전문직업성' 영역에서는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의사-환자 관계 양상이 바뀌었음을 학습하였다면 본 학습목표에서는 병원, 의원, 약국 등을 위시한 의료기관의 변화 양상을 학습한다. 예를 들어 고대에서 병원은 일종의 종교적 구휼을 담당했었으나 18세기 임상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그 역할이 변화하였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병원의 기능이 바뀌어 옴을 이해함으로써 현대사회 속에서 향후 병원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한 안목이 배양될 수 있다. 의원 및 보건소 등 병원 외 의료기관과 약국 역시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으나 구체적 역할들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정규적인 의료 이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체적인

치료 및 민간요법에 의지해 왔다. 다수의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제공받는 행태가 자리잡은 것 역시 근래의 일이며, 의료서비스 접근성 또한 지역별, 시대별로 차이를 보인다. 의료기관의 성장과 기능의 분화는 여러 직군을 양산해 왔으며 오늘날 보건의료 인력 체계 기틀을 형성했다. 학습자는 의료기관의 종류와 기능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그리고 각 의료기관이 환자를 비롯한 일반 인구의 의료 수요를 어떻게 충족해 왔는지를 습득한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 시스템 전체적 차원에서 의료기관의 역사를 이해하고,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양상을 그려낼 수 있다.

□ 참고자료

- 여인석 등, 병원의 인문학, 역사공간, 2023.
- Charles E. Rosenberg, *The Care of Strangers: The Rise of America's Hospital System*,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7.
- Guenter B. Risse, *Mending Bodies, Saving Souls: A History of Hospitals*,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Lindsay Granshaw and Roy Porter, *The Hospitals in History*, Routledge, 1990.

(2) 의약품 관리, 공중보건, 의료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보건복지 제도의 역사적 등장과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해설: 의료는 전통적으로 의료인-환자 간의 일이었다. 하지만 18세기 무렵부터 중상주의 이념이 등장하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근대 국가(정부)가 개입하는 영역이 되었다. 국가와 정부는 각종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 검역을 하거나 격리하고 위생상태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공중보건 행정을 도입하면서 의료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의약품 관리 및 의료인 면허제도, 보험제도 및 복지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개입의 성격과 역할이 매우 다양해졌다. 일부 국가에서 정부는 공보험체계를 통하여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고 국영의료체계를 운영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의료보험과 같은 제3자 지불제도는 전통적인 의사-환자 관계 양상을 크게 변화시켰다. 학습자는 국가 및 정부의 보건의료에 대한 규제 및 개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고 현대 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제도가 형성되어 온 과정을 습득한다.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정부(국가)가 보건의료 영역에 갖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것이 의사-환자 관계에 미칠 영향을 숙고하며,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 정부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안목을 배양한다.

□ 참고자료

- 신규환, 국가, 도시, 위생, 아카넷, 2008.
- 얀 순딘, 샘 빌네르 저, 신영전, 박세홍 역, 스웨덴 공중보건 250년사, 한울, 2012.
- 이방원 등, 국가의 질병 관리 역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 이현주 등, 국가와 감염병, 세창출판사, 2023.
- 정준호 등, 공중보건의 시대, 들녘, 2024.
- 제임스 콜그로브 저, 정세권 역, 면역국가의 탄생: 20세기 미국의 백신접종 논쟁사, 모시는사람들, 2024.
- 조지 로젠 저, 이종찬, 김관욱 역, 보건과 문명, 몸과마음, 2009.
- Dorothy Porter, *Health, Civilization, and the State*, Routledge, 1999.

(3) 의학 연구 및 의학교육 제도의 역사적 변천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

해설: 전통적으로 의학 연구와 교육은 의사 집단 내부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의과학의 중요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오늘날 의학 연구와 교육은 정부, 정책담당자, 재단 및 연구기금, 교육자, 의료인, 환자 등 수많은 행위자들이 관여하는 복합체가 되고 있다. 한편 서구의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식민 의학을 탄생시킨 제국주의 시대 이래 보건의료 분야의 국제 교류 및 협력은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의과학 지식 생산 및 전파의 역사적 전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학 연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와 필요성 뿐 아니라 글로벌적 교류의 성격 및 양상을 알 필요가 있다.

의학교육은 의사들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한 기제이다. 그러나 의학교육의 양상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다. 의학교육은 큰 틀에서 전통적인 도제식 훈련에서 오늘날 대학교육과 수련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실시되었으며 교육 방법과 내용 역시 실험실 훈련, 병원 실습 등 시대별로 주안점이 달라졌다. 다양한 수련 과정을 겪은 의사들을 어떻게 하나의 집단으로 관리할 것인지 역시 주요한 과제가 되었다. 의학교육과 수련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안목을 익힘으로써 오늘날 의학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을 이해할 수 있다.

본 항목을 통해 학습자들은 의학 연구와 교육이 제도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변모되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관여하는 사회적 산물이 되었음을 이해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한 사회 및 국가의 역할을 인식하고 의학 교육과 연구의 공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

□ 참고자료

- 케네스 M. 루드머러 저, 권복규 역, 치유의 시간, KMA의료정책연구소, 2023.
- 토마스 N. 보너 저, 권복규 등역, 의사 만들기, 청년의사, 2024.
- Kenneth M. Ludmerer, *Learning to Heal: The Development of American Medical Educati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5.

(4) 사회, 국가, 시장, 의료인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역사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해설: 오랫동안 의료는 민간 영역이었으며 수많은 비의료인들, 치유자들과 함께 하는 가내 경제의 일환이었다. 자본주의 시장과 경제체제가 확대되면서 의료전문직 역시 그 영향력이 확대되었고, 의료와 시장 경제는 보다 긴밀한 관련성을 지니게 되었다. 현대사회에 들어 의료인은 대규모 보건의료산업의 핵심 인력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이해당사자이다. 고도로 발전된 의료산업은 대규모 자본의 투자 대상이 되는 한편 정부와 국가는 의료산업을 규제할 뿐 아니라 지원 보조함으로써 주요한 복지정책 아젠다를 관철시킨다. 이는 전통적인 의료인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된다. 학습자들은 오늘날 의료인들이 환자의 이해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이해를 고려하게 된 연유를 사회, 국가 및 시장, 의료인 간의 상호작용 차원에서 학습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사회와 국가, 시장 간의 관계 속에서 보건의료와 보건 의료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숙고하도록 돕는다.

□ 참고자료

- 폴 스타 저, 이종찬 역, 의학, 정치 돈-미국 의료의 역사사회학, 한울, 2023.
- 엘리엇 프라이드슨 저, 박호진 역, 프로페셔널리즘, 아카넷, 2007.

영역 5: 한국 근현대의학사 및 지역 의료사

○ 최종학습성과

- (1) 한국 의료의 역사적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해설: 모든 현재가 과거의 유산 위에 서 있듯, 오늘날의 한국 의료 역시 지난날의 흐름 위에 위치한다. 따라서 한국 의료의 오늘날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한국 의료의 역사적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는 시간과 주제를 날줄과 씨줄로 삼아 한국 의료의 변화를 학습한다. 다시 말해, 시대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따라 의료 및 복지 제도, 의학 지식 생산 및 교육 제도, 질병 발생 양상, 의료 이용 양상 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종합적으로 학습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한국 의료의 흐름을 통괄하는 역사적 통찰을 얻는 동시에, 이를 발판으로 한국 의료의 바람직한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

○ 실행학습목표

- (1) 한국 전통 사회의 의료를 이해하고, 특징과 유산을 설명할 수 있다.

해설: 한국을 비롯한 여러 사회의 의료 문화는 전통 의료의 유산 위에 성립된다. 따라서 과거 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론,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전통 사회의 의료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근대 이전 한국에서 의학 지식은 어떻게 생산되고 교육되었는가, 그리고 대중의 의료 문화는 어떠한가, 주로 어떤 질병이 유행하였는가. 이 시기를 교육하고 학습할 때, 세 가지 지점에 유념해야 한다. 먼저 과거의 역동성에 주목해야 한다. 전근대와 근대를 대비하는 구도에서, 전근대 사회는 대개 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전근대로 통칭하는 시대는 굉장히 길고, 사회의 변화와 함께 역동적으로 변화하였다. 다음으로 당대의 관점에서 과거를 바라보아야 한다. 전통 사회의 의료를 근대성을 결여한 것이 아닌 나름의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거와 현재의 단절과 연속성을 모두 볼 수 있어야 한다. 근대 의료의 형성은 비합리적인 과거와의 단절이 아니다. 앞서 강조한바 전통 사회의 의료는 나름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하였고, 이는 근대 의료의 형성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지점을 유념하여 전통 사회의 의료를 개괄해야 한다.

□ 참고자료

- 권순형 등, '몸'으로 본 한국여성사, 국사편찬위원회, 2011.
- 김성수, 신규환. 몸으로 세계를 보다: 동아시아 해부학의 성립과 발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신동원, 조선의약생활사: 환자를 중심으로 본 의료 2000년, 들녘, 2014.
- 여인석 등, 한국의학사, 역사공간, 2018.
- 이경록, 조선전기의 의료제도와 의술, 역사공간, 2020.

(2) 서양의학 도입 과정을 이해하고, 특징과 유산을 설명할 수 있다.

해설: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의료는 전통 의료의 흐름에 서양의학의 흐름이 더해진 결과이다. 서양의학의 도입과 함께, 의학 지식이 생산되고 교육되며 실천되는 과정, 한국의 의료 문화 등은 종합적으로 변화하였다. 이 시기를 교육하고 학습할 때, 두 가지 지점에 유념해야 한다. 먼저 서양의학의 도입을 정치·경제적 변화와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서양의학의 도입은 단순히 학문의 차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기보다, 제국의 시대라는 시공간적 배경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다음으로 서양의학과 전통의학을 근대와 전근대로 치환하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서양의학의 도입이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 전통 의학 역시 나름의 근대성을 획득하였다.

□ 참고자료

- 레이상린 저. 박승만 등역, 비려비마: 중국의 근대성과 의학, 인다, 2021.
- 박윤재,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 해안, 2005.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70년사 1-3, 보건복지부, 2015.
-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한울, 1997.
- 여인석 등, 한국의학사, 역사공간, 2018.
- 윤홍식,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1: 자본주의로의 이행의 시작, 18세기부터 1945년까지,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3) 일제강점기가 한국 의학에 남긴 상흔과 과제를 설명할 수 있다.

해설: 일제강점기는 한국에 크나큰 상흔을 남겼고, 의료 분야 역시 마찬가지이다. 서양의학의 도입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의학 지식의 생산, 교육, 실천 그리고 의료 문화 등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라는 이중적 위치 속에서 다시 한번 크게 변화하였다. 이 시기를 교육하고 학습할 때, 다음의 지점에 유념해야 한다. 먼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식민성과 근대성이 남긴 유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식민지 시기는 근대화 또는 수탈의 단면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 식민성과 근대성의 두 측면이 교차하여 창출한 복합적인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 참고자료

- 김연희 등, 위생의 시대, 들녘, 2024.
- 박윤재, 일제의 의료정책과 조선 지배, 동북아역사재단, 2023.
- 여인석 등, 한국의학사, 역사공간, 2018.
- 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편, 한의학, 식민지를 앓다: 식민지 시기 한의학의 근대화 연구, 아카넷, 2008.
- 윤홍식,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1: 자본주의로의 이행의 시작, 18세기부터 1945년까지,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4) 해방 이후 한국 의료의 변화를 이해하고, 해결 과제와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해설: 해방 이후 한국 사회는 극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의료 분야 또한 마찬가지이다. 식민지 시기를 뒤로 하고 건국의 시기가 시작되면서, 의학 지식의 생산, 교육, 실천, 그리고 의료 문화 역시 큰 변화를 겪었다. 해방 이후의 변화는 오늘날 한국 의료의 직접적인 기원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무에서 비롯한 것은 아니며, 이는 이 시기를 교육하고 학습할 때 유념해야 할 두 가지 지점을 의미한다. 먼저 일제강점기와의 연속과 단절을 모두 볼 수 있어야 한다. 해방 이후는 전환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전환은 일제강점기의 흔적 위에서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의료 제도의 변화를 정치·경제적 배경과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 한국의 정치·경제적 구조는 급격히 변화하였으며, 이는 현대 한국의 의료 제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요컨대 현대 한국 의료는 현대 한국 특유의 정치·경제적 구조 속에서 식민지의 유산을 발판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 박윤재, 한국현대의료사, 들녘, 2021.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70년사 1-3, 보건복지부, 2015.
- 여인석 등, 한국의학사, 역사공간, 2018.
- 윤홍식,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2: 반공개발국가 복지체제의 형성, 1945년부터 1980년까지,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 정준호 등, 공중보건의 시대, 들녘, 2024.

(5) 지역, 계층, 성별 등에 따른 건강 및 의료 이용 양상의 역사적 변천을 이해하고, 해결 과제와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해설: 의료 자원은 다른 사회자원과 마찬가지로 불평등하게 배분되며, 사회경제적 지위와 지역, 성별 등에 따라 의료 이용은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를테면 의료보험 제도는 특정한 집단을 우선으로 시작되었고,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시대에도 의료 이용의 접근성은 여전히 지역과 집단에 따라 상이하다. 따라서 이러한 지점에 주목하여 한국 의료의 노정한 한계와 이를 극복할 개선 방안을 동시에 고민하고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과 집단에 따른 의료 수요와 서비스 형성 및 변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지역 사회 의료와 건강에 대한 통합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제도권 의료, 대형병원과 의과대학 등에서 이루어지는 의학 지식의 생산·교육·실천과 의료보험 등의 사회 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실천에서 더 나아가, 실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최종 사용자의 시선에서 의료 제도와 문화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

□ 참고자료

- 김창엽 등, 한국의 건강불평등,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 윤홍식,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2: 반공개발국가 복지체제의 형성, 1945년부터 1980년까지,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 윤홍식,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3: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 정다혜, 주민참여로 마을의 건강을: 1970-80년대 마을건강원 활동과 보건의료에서의 주민참여 논쟁, 의사학 31-1, 2022.
- 정다혜, 병원에서 마을로-거제 지역사회건강사업으로 본 1970년대 의료 소외지역의 지역보건 실험, 의사와 역사 129, 2021.

(6) 자신이 속한 교육 및 의료기관의 역사를 이해하고, 역할과 바람직한 방향을 설명할 수 있다.

해설: 한국 현대 의료사의 성과는 기관사에도 확장되어야 한다. 대개의 기관사는 내부의 시선에서 바라본 기관의 확장과 발전 등에 대한 서술로 구성된다. 기관의 역사를 사회와 무관한 진보의 연속으로 상정하는 이런 식의 서술은 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한계에 대한 성찰을 가로막는다. 교육자와 학습자는 자신이 소속된 교육 및 의료기관의 지난날과 오늘날을 한국 현대 의료의 흐름, 더 나아가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 속에 위치시켜,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관의 바람직한 미래를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

IV. 강의안 구성 예시

1. 강의명: 역사 속의 질병, 환자, 보건

(1) 강의 개요

포괄 영역	영역1, 4	학습 시기	의예과 1, 2학년						
1. 교과목 개요									
<p>인간은 일생을 질병과 함께 보낸다. 병에 걸린 때는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병에 걸리지 않은 때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애쓴다. 이것은 비단 개인의 일만은 아니다. 사회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에서 질병에 대응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질병은 개인부터 세계까지 여러 차원에서 인간 사회와 영향을 주고 받는다. 질병을 다룰 때 신체적인 면뿐 아니라 사회적인 면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 수업은 질병의 발생과 치료, 질병에 대한 인식과 대응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고, 그에 관여한 과학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요소를 탐구한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환자의 삶과 고통 및 보건의료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2. 교과목 성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질병이 신체적 현상임과 동시에 사회적 현상임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질병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문화에 따라 다양함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다. 3)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에 공감할 수 있다. 4) 다양한 보건 제도의 역사적 변화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3. 강의시간 수									
수업	26시간(13주)	평가(시험)	4시간(2주)	계	30시간(15주)				
4. 평가방법									
필기시험	40%	출석	20%	발표	15%	과제	15%	태도	10%
5. 수업방법									
강의, 그룹토론, 발표									

(2) 수업 일정

주	단원명
01	오리엔테이션: 질병이란 무엇인가
02	중세 페스트의 대유행과 방역제도의 등장
03	콜레라와 위생개혁
04	1918년 인플루엔자 팬데믹과 국가의 일상 통제
05	장티푸스 보균자의 삶으로 본 방역과 인권
06	말라리아, 제국주의, 열대의학
07	성병으로 보는 질병 관리와 젠더
08	중간고사
09	결핵의 사회사
10	한센병 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
11	두창과 예방접종제도의 기원
12	정신질환과 '광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
13	당뇨병으로 본 거대자본의 발달과 질병의 구성
14	암과 두려움
15	기말고사

(3) 주차별 활동

수업일	1주차			
수업제목	오리엔테이션: 질병이란 무엇인가			
수업성과	1. 역사적으로 중요한 질병과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질병(disease), 질환(illness), 병(sickness)의 개념을 구분할 수 있다. 3. '질병의 구성'(Framing Disease)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형성평가	시행 시기	'도입', '정리' 중 시행		
	방법	질의, 응답		
	항목 수	3개 질문		
참고문헌	1. Charles E. Rosenberg and Janet Golden eds., <i>Framing Disease: Studies in Cultural History</i> , Rutgers, 1992. 2. Mark Harrison, <i>Disease and the Modern World: 1500 to the Present Day</i> , Polity 2004. 3. 대한감염학회, 한국전염병사, 군자출판사, 2018. 4. 신동원, 호환 마마 천연두: 병의 일상 개념사, 돌베개, 2013.			
구체적인 교수-학습과정				
구분	시간	주요내용	학습방법	강의자료
도입	20분	수렵사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산업의 발달과 사회의 변천에 따라 주된 질병이 달라졌음을 설명한다.	강의	PPT
전개	60분	질병의 유행, 그에 대한 사회의 이해와 대응, 환자의 경험을 결정하는 데 다양한 요소가 관여함을 설명한다.	강의	PPT
정리	30분	질병사의 핵심 개념들을 설명하고, 생물학적, 과학기술적, 사회구조적, 문화적 측면에 대한 포괄적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강의	PPT

수업일	2주차			
수업제목	중세 페스트의 대유행과 방역제도의 등장			
수업성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세 페스트의 유행과 그에 영향을 미친 복합적 요인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검역제도 및 방역제도의 출현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페스트가 중세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형성평가	시행 시기	'도입', '정리' 중 시행		
	방법	질의, 응답		
	항목 수	3개 질문		
참고문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윌리엄 맥닐 저, 김우영 역, 전염병의 세계사, 이산, 2005. 2. 박흥식, 흑사병과 중세 말기 유럽의 인구문제, 서양사론 93, 2007. 3. 박흥식, 흑사병에 대한 도시들의 대응, 서양중세사연구, 25, 2010. 4. 박흥식, 중세 말기 유럽의 성직자와 교회에 미친 흑사병의 영향, 서양사연구 44, 2011. 5. 박흥식, 흑사병은 도시 피렌체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서양사론, 130, 2016. 6. 박흥식, 기후변화, 흑사병 그리고 대전환, 역사학보 252, 2021. 			
구체적인 교수-학습과정				
구분	시간	주요내용	학습방법	강의자료
도입	20분	페스트의 범유럽 확산을 초래한 생태적 및 사회적 요소를 설명한다.	강의	PPT
전개	60분	페스트를 막기 위한 중세 도시국가의 대응과 방역제도의 수립 과정을 설명한다.	강의	PPT
정리	30분	페스트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중세 체제의 붕괴에 대해 설명한다.	강의	PPT

수업일	3주차			
수업제목	콜레라와 위생개혁			
수업성과	1. 19세기 영국의 콜레라 유행을 야기한 사회구조적 배경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19세기 영국과 독일의 위생개혁운동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콜레라의 병인과 예방법을 둘러싼 논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형성평가	시행 시기	'도입', '정리' 중 시행		
	방법	질의, 응답		
	항목 수	3개 질문		
참고문헌	1. 프레데릭 F. 카트라이트, 마이클 비디스 저, 김훈 역, 질병의 역사, 가람기획, 2004. 2. 조지 로젠 저, 이종찬, 김관욱 역, 보건과 문명, 몸과마음, 2009. 3. 이안 R. 맥니리 저, 신영전, 서지은 역, 거대한 규모의 의학, 건강미디어협동조합, 2019.			
구체적인 교수-학습과정				
구분	시간	주요내용	학습방법	강의자료
도입	20분	19세기 초 영국의 콜레라 유행을 야기한 사회구조적 요인을 설명한다.	강의	PPT
전개	60분	콜레라의 확산 경로와 예방법에 대한 채드윅, 스노우, 사이먼의 조사와 위생개혁운동에 대해 설명한다.	강의	PPT
정리	30분	19세기 독일의 위생개혁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서로 다른 병인론의 충돌에 대해 설명한다.	강의	PPT

수업일	4주차			
수업제목	1918년 인플루엔자 팬데믹과 국가의 일상 통제			
수업성과	1. 팬데믹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1918년 인플루엔자 팬데믹 방역을 둘러싼 미국 정부와 시민의 충돌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생체권력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형성평가	시행 시기	'도입', '정리' 중 시행		
	방법	질의, 응답		
	항목 수	3개 질문		
참고문헌	1. 엘프리드 W. 크로스비 저, 김기윤 역, 콜럼버스가 바꾼 세계, 지식의 숲, 2006. 2. 김서형, 공중보건국과 1918년 인플루엔자, 미국사연구 31, 2010. 3. 김서형, 생체권력과 1918년 인플루엔자, 미국학논집 42-2, 2010. 4. 김서형, 루퍼트 블루의 공중보건 정책과 공중보건국, 미국사연구 37, 2013.			
구체적인 교수-학습과정				
구분	시간	주요내용	학습방법	강의자료
도입	20분	팬데믹 개념과 1918년 인플루엔자의 확산 양상을 설명한다.	강의	PPT
전개	60분	1918년 인플루엔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과 공중보건국의 시민 통제 강화를 설명한다.	강의	PPT
정리	30분	“생체권력(biopower)” 개념과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미국 시민의 반발에 대해 설명한다.	강의	PPT

수업일	5주차			
수업제목	장티푸스 보균자의 삶으로 본 방역과 인권			
수업성과	1. 장티푸스 보균자에 대한 미국 사회의 혐오와 통제 정책을 설명할 수 있다. 2. 장티푸스 보균자의 고통과 삶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3. 미국의 장티푸스 보균자 관리 정책이 지닌 윤리적 딜레마를 인지하고 설명할 수 있다.			
형성평가	시행 시기	'도입', '정리' 중 시행		
	방법	질의, 응답		
	항목 수	3개 질문		
참고문헌	수전 캠벨 바틀레티 저, 광명단 역, 위험한 요리사 메리, 돌베개, 2018.			
수강생 요구사항	학생들은 수업 전에 위 책을 미리 읽고, 메리 멜런에 대한 정부의 방역 조치가 적절했는지 아니면 지나친 인권 침해인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한 후 수업에 참여한다.			
구체적인 교수-학습과정				
구분	시간	주요내용	학습방법	강의자료
도입	20분	팬데믹 개념과 1918년 인플루엔자의 확산 양상을 설명한다.	강의	PPT
전개	60분	1918년 인플루엔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과 공중보건국의 시민 통제 강화를 설명한다.	강의	PPT
정리	30분	“생체권력(biopower)” 개념과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미국 시민의 반발에 대해 설명한다.	강의	PPT

수업일	6주차			
수업제목	말라리아, 제국주의, 열대의학			
수업성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말라리아가 서구 제국주의 국가의 아프리카 진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2. 제국주의가 열대의학의 발달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3. 키니네의 개발이 가져온 사회적 영향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형성평가	시행 시기	'도입', '정리' 중 시행		
	방법	질의, 응답		
	항목 수	3개 질문		
참고문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니얼 헤드릭 저, 김우민 역, 과학기술과 제국주의: 증기선, 키니네, 기관총, 모 티브북, 2013. 2. Helen Tilley, <i>Africa as a Living Laboratory: Empire, Development, and the Problem of Scientific Knowledge, 1870-1950</i>,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1. 			
구체적인 교수-학습과정				
구분	시간	주요내용	학습방법	강의자료
도입	20분	말라리아가 아프리카의 풍토병이 된 생태학적 요인을 소개하고 그것이 서구 열강의 아프리카 진출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설명한다.	강의	PPT
전개	60분	제국주의적 팽창을 위한 서구 열강의 말라리아 예방법 개발과 열대의학의 발달에 대해 설명한다.	강의	PPT
정리	30분	열대의학이 서구 제국주의의 확대에 미친 영향을 설명한다.	강의	PPT

수업일	7주차			
수업제목	성병으로 보는 질병 관리와 젠더			
수업성과	1. 매독의 전파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부도덕한 질병'으로서 매독의 이미지가 형성된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매춘부 통제 위주의 성병관리제도 수립에 미친 젠더 질서의 영향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형성평가	시행 시기	'도입', '정리' 중 시행		
	방법	질의, 응답		
	항목 수	3개 질문		
참고문헌	1. 셸던 와츠 저, 태경섭, 한창호 역, 전염병과 역사: 제국은 어떻게 전염병을 유행 시켰는가, 모티브북, 2009. 2. 강혜경, 일제시기 성병의 사회문제화와 성병관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9, 2009. 3. 신규환, 개항, 전쟁, 성병: 한말 일제초의 성병 유행과 통제, 의사학 17-2, 2008. 4.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역사문화원, 역사 속의 질병, 사회 속의 질병, 솔빛길, 2015.			
구체적인 교수-학습과정				
구분	시간	주요내용	학습방법	강의자료
도입	20분	매독의 자연사, 기원, 전파에 대해 설명한다.	강의	PPT
전개	60분	'감추어야 할 질병'으로서 매독의 이미지가 형성된 과정과 기독교 문화의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	강의	PPT
정리	30분	매춘부 통제 위주의 성병관리제도 수립과 남성 중심적 사회 질서의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	강의	PPT

수업일	9주차			
수업제목	결핵의 사회사			
수업성과	1. 일제강점기에 결핵 만연을 초래한 복합적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2. 일제강점기에 결핵의 병인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이 병존했음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세균설에 입각한 결핵관리정책이 지닌 특징과 한계를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			
형성평가	시행 시기	'도입', '정리' 중 시행		
	방법	질의, 응답		
	항목 수	3개 질문		
참고문헌	1. 최은경, 일제강점기 조선 사회 결핵 유행과 대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1. 2. William Johnston, <i>The Modern Epidemic: A History of Tuberculosis in Japan</i> ,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1995.			
구체적인 교수-학습과정				
구분	시간	주요내용	학습방법	강의자료
도입	20분	식민지 조선의 결핵 만연 실태와 그것을 초래한 사회적 요인에 대해 설명한다.	강의	PPT
전개	60분	결핵의 병인에 관한 서로 다른 관점들-한의학적 관점, 환경설, 유전설, 세균설 등-을 설명한다.	강의	PPT
정리	30분	세균설에 입각한 결핵관리정책이 지닌 개인 중심적 특징과 한계를 이해하고 설명한다.	강의	PPT

수업일	10주차			
수업제목	한센병 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			
수업성과	1.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배제를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2. 한센인 강제격리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한센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형성평가	시행 시기	'도입', '정리' 중 시행		
	방법	질의, 응답		
	항목 수	3개 질문		
참고문헌	1. 김재형, 질병, 낙인, 돌베개, 2021. 2. 김재형, 박지영, 현재환 등, 우리 안의 우생학, 돌베개, 2024.			
구체적인 교수-학습과정				
구분	시간	주요내용	학습방법	강의자료
도입	20분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배제에 대해 설명한다.	강의	PPT
전개	60분	한센인에 대한 강제격리제도의 도입 과정을 설명한다.	강의	PPT
정리	30분	한센인의 고통과 차별 경험에 대해 설명한다.	강의	PPT

수업일	11주차			
수업제목	두창과 예방접종제도의 기원			
수업성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두법 개발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예방접종의무제도의 등장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예방접종의무제도에 대한 논란과 그에 관련한 사회정치적 요소를 이해한다. 			
형성평가	시행 시기	'도입', '정리' 중 시행		
	방법	질의, 응답		
	항목 수	3개 질문		
참고문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현주, 19세기에서 20세기 중반 한국의 우두법 및 백신접종 연구에 있어 지구 사적 관점의 유용성, 동국사학 65, 2018. 2. 이현주, 논쟁으로부터 배우기: 백신 반대론자와 초기 제너백신의 효용성과 안전성 논쟁, 서양사론 149, 2021. 3. 제임스 콜그로브, 정세권 역, 면역국가의 탄생: 20세기 미국의 백신접종 논쟁사, 모시는사람들, 2024. 			
구체적인 교수-학습과정				
구분	시간	주요내용	학습방법	강의자료
도입	20분	두창의 세계적 유행과 우두법 개발에 대해 설명한다.	강의	PPT
전개	60분	19세기 서구의 예방접종의무제도 등장에 대해 설명한다.	강의	PPT
정리	30분	의무예방접종 반대운동과 그 정치적, 사회적, 의학적 배경을 설명한다.	강의	PPT

수업일	12주차			
수업제목	정신질환과 ‘광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			
수업성과	1. ‘광기’의 정의가 사회적으로 결정됨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정신질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3. 정신의학의 역사적 변천과 그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형성평가	시행 시기	‘도입’, ‘정리’ 중 시행		
	방법	질의, 응답		
	항목 수	3개 질문		
참고문헌	1. 에드워드 쇼터 저, 최보문 역, 정신의학의 역사: 광인의 수용소에서 프로작의 시대까지, 바다출판사, 2020. 2. 미셸 푸코 저, 이규현, 오생근 역, 광기의 역사, 나남출판, 2020.			
수강생 요구사항	학생들은 아래 두 자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읽고 수업 전까지 감상문(원고지 10매 내외)을 제출한다. 1. 사이먼 자렛 저, 최이현 역, 백치라 불린 사람들: 지능과 관념·법·문화·인종 담론이 미친 지적 장애의 역사, 생각이음, 2022. 2. 켄 키지 저, 정희성 역, 싸꾸기 등지 위로 날아간 새, 민음사, 2009. (또는 이 책을 원작으로 동일 제목의 영화(밀로스 포만 감독, 1977)를 대신 시청)			
구체적인 교수-학습과정				
구분	시간	주요내용	학습방법	강의자료
도입	20분	‘광기’(madness)에 대한 정의의 시대별 차이를 설명한다.	강의	PPT
전개	60분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의 출현과 그 윤리적 문제점을 설명한다.	강의	PPT
정리	30분	정신의학의 발달과 계몽주의에 대해 설명한다.	강의	PPT

수업일		13주차		
수업제목		당뇨병으로 본 거대자본의 발달과 질병의 구성		
수업성과		1. 당뇨병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2. 당뇨병 진단 기준의 구성과 그에 미친 자본주의의 영향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환자-정부-의료인-제약회사의 상호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형성평가	시행 시기	'도입', '정리' 중 시행		
	방법	질의, 응답		
	항목 수	3개 질문		
참고문헌		1. 제러미 그린 저, 김명진, 김준수 역, 숫자, 의학을 지배하다: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과 제약산업의 사회사, 뿌리와이파리, 2019.		
구체적인 교수-학습과정				
구분	시간	주요내용	학습방법	강의자료
도입	20분	당뇨병과 당뇨병 환자의 일상 관리에 대해 설명한다.	강의	PPT
전개	60분	거대 제약회사의 당뇨병 치료제 개발과 의사를 겨냥한 마케팅 도입에 대해 설명한다.	강의	PPT
정리	30분	거대 제약회사의 당뇨병 집단검진사업 지원과 당뇨병의 진단 범위 확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강의	PPT

수업일		14주차		
수업제목		암과 두려움		
수업성과		1. 암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과 그 형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암 환자가 겪는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3. 암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국가적 대응의 출현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형성평가	시행 시기	'도입', '정리' 중 시행		
	방법	질의, 응답		
	항목 수	3개 질문		
참고문헌		1. 수전 손택 저, 이재원 역, 은유로서의 질병, 이후, 2002. 2. 싯다르타 무케르지 저, 이한음 역, 암: 만병의 황제의 역사, 까치글방, 2011. 3. James T. Patterson, <i>The Dread Disease: Cancer and Modern American Culture</i> ,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구체적인 교수-학습과정				
구분	시간	주요내용	학습방법	강의자료
도입	20분	암의 병인론과 치료법의 역사적 변천을 설명한다.	강의	PPT
전개	60분	암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과 '감추는 문화'의 형성 과정을 설명한다.	강의	PPT
정리	30분	암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국가적 대응의 수립 과정을 설명한다.	강의	PPT

2. 강의명: 한국 의학사

(1) 강의 개요

포괄 영역	영역5	학습 시기	의예과 1, 2학년		
1. 교과목 개요					
본 강의의 목적은 한국 의료의 지난날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의료의 본질을 성찰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수강생은 한국 의료가 단순한 지식 체계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한 결과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 교과목 성과					
1) 의료의 역사적 변천을 설명할 수 있다. 2) 의료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요인 등이 중층적으로 결합한 효과임을 설명할 수 있다. 3) 의료의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구상할 수 있다.					
3. 강의시간 수					
수업	12시간(6주)	평가(시험)	2시간(1주)	계	14시간(7주)
4. 평가방법					
필기시험	70%		출석	30%	
5. 수업방법					
강의					

(2) 수업 일정

주	단원명
01	서양의학 도입과 근대국가 건설
02	근대국가와 한의학
03	제국주의 국가와 의학
04	국가 재건과 의학
05	산업화 국가와 의학
06	신자유주의 국가와 의학
07	정리 및 평가

(3) 주차별 활동

수업일	1주차			
수업제목	서양의학 도입과 근대국가 건설			
수업성과	1. 국가와 의학의 관계가 시대에 따라 변화한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2. 근대국가에서 의학이 수행하는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3. 조선 후기와 대한제국 시기 서양의학이 도입된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형성평가	시행 시기	'도입', '정리' 중 시행		
	방법	질의, 응답		
	항목 수	3개 질문		
참고문헌	1. 미셸 푸코 저, 김상운 역,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난장, 2015, 11강 1976년 3월 17일 강의. 2. 레이상린 저, 박승만 등 역, 비려비마: 중국의 근대성과 의학, 2021, 2장 주권과 현미경: 1910-1911년 만주 페스트 방역. 3. 박윤재,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 해안, 2005, 2장 개항 후 서양의학의 수용과 위생행정의 출발. 4. 윤흥식,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1: 자본주의로의 이행의 시작,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6장 전자본주의 분배체계의 해체.			
구체적인 교수-학습과정				
구분	시간	주요내용	학습방법	강의자료
도입	20분	근대 국가에서 의학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개괄한다.	강의	PPT
전개	65분	조선 후기와 대한제국 시기 서양의학이 도입되는 과정과 이유를 설명한다.	강의	PPT
정리	15분	전체 강의를 정리하고, 다음 강의를 예고한다.	강의	PPT

수업일	2주차			
수업제목	근대국가와 한의학			
수업성과	1. 근대국가에서 전통의학이 수행하는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2. 조선 후기와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시기에 한의학의 정체성이 재정립되는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형성평가	시행 시기	'도입', '정리' 중 시행		
	방법	질의, 응답		
	항목 수	3개 질문		
참고문헌	1. 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한의학, 식민지를 앓다, 아카넷, 2008, 1장 개항 이후 한의의 동태, 2장 일제의 한의학정책. 2. 신창건, 경성제국대학 한약 연구의 전개-193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김연희 등, 위생의 시대, 들녘, 2024. 3. 레이상린 저, 박승만 등 역, 비려비마: 중국의 근대성과 의학, 인다, 2021, 7장 동사로서의 과학, 8장 세균 이론과 '변증론치'의 전사, 9장 정치 전략으로서의 연구 설계.			
구체적인 교수-학습과정				
구분	시간	주요내용	학습방법	강의자료
도입	20분	근대국가에서 전통의학이 수행하는 역할을 개괄한다.	강의	PPT
전개	65분	조선 후기와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시기에 한의학의 정체성이 재정립되는 양상을 설명한다.	강의	PPT
정리	15분	전체 강의를 정리하고, 다음 강의를 예고한다.	강의	PPT

수업일	3주차			
수업제목	제국주의 국가와 의학			
수업성과	1. 제국주의 국가에서 의학이 수행하는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2. 일제강점기 한국의 의료체계와 의학연구의 실재를 설명할 수 있다. 3. 제국주의 의료의 실재를 식민지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형성평가	시행 시기	'도입', '정리' 중 시행		
	방법	질의, 응답		
	항목 수	3개 질문		
참고문헌	1. 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한국 근대의학의 탄생과 국가, 역사공간, 2016, 10장 대한제국과 통감부의 의학체계 구상과 전개. 2. 박윤재, 일제의 의료정책과 조선 지배, 동북아역사재단, 2023. 3. 윤희식,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1: 자본주의로의 이행의 시작,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7장 식민지, 강요된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주변부화.			
구체적인 교수-학습과정				
구분	시간	주요내용	학습방법	강의자료
도입	20분	제국주의 국가에서 의학이 수행하는 역할을 개괄한다.	강의	PPT
전개	65분	일제강점기 한국의 의료체계와 의학연구의 실재를 설명한다.	강의	PPT
정리	15분	전체 강의를 정리하고, 다음 강의를 예고한다.	강의	PPT

수업일	4주차			
수업제목	국가 재건과 의학			
수업성과	1, 국가 재건 과정에서 의학이 수행한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2, 미군정기와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시기에 한국의 의료체계가 변화한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형성평가	시행 시기	'도입', '정리' 중 시행		
	방법	질의, 응답		
	항목 수	3개 질문		
참고문헌	1, 여인석 등, 한국의학사, 역사공간, 2018, 11장 해방 이후 한국 현대의료의 형성. 2, 윤희식,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2: 반공개발국가 복지체제의 형성,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9장 대역전과 자본주의 분배체계의 시작, 10장 원조 복지체제의 형성과 위기. 3, 박윤재, 한국현대의료사, 들녘, 2021, 1장 '해방과 현대의료의 기반 조성.			
구체적인 교수-학습과정				
구분	시간	주요내용	학습방법	강의자료
도입	20분	국가 재건 과정에서 의학이 수행하는 역할을 개괄한다.	강의	PPT
전개	65분	미군정기와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시기, 한국의 의료체계가 변화한 양상을 설명한다.	강의	PPT
정리	15분	전체 강의를 정리하고, 다음 강의를 예고한다.	강의	PPT

수업일	5주차			
수업제목	산업화 국가와 의학			
수업성과	1. 산업화 과정에서 의학이 수행한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2.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시기 한국 의료체계가 변화한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형성평가	시행 시기	'도입', '정리' 중 시행		
	방법	질의, 응답		
	항목 수	3개 질문		
참고문헌	1. 윤희식,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2: 반공개발국가 복지체제의 형성,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11장 개발국가 복지체제의 형성. 2. 박윤재, 한국현대의료사, 들녘, 2021, 2장 경제성장과 의료.			
구체적인 교수-학습과정				
구분	시간	주요내용	학습방법	강의자료
도입	20분	산업화 과정에서 의학이 수행하는 역할을 개괄한다.	강의	PPT
전개	65분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시기, 한국의 의료체계가 변화한 양상을 설명한다.	강의	PPT
정리	15분	전체 강의를 정리하고, 다음 강의를 예고한다.	강의	PPT

수업일	6주차			
수업제목	신자유주의 국가와 의학			
수업성과	1.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의학이 수행하는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2.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 시기 한국 의료체계가 변화한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형성평가	시행 시기	'도입', '정리' 중 시행		
	방법	질의, 응답		
	항목 수	3개 질문		
참고문헌	1. 윤희식,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3: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13장 역진적 선별주의 복지체제의 시작, 14장 자유주의 정부와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 2. 박윤재, 한국현대의료사, 들녘, 2021, 3장 현대의료의 성장.			
구체적인 교수-학습과정				
구분	시간	주요내용	학습방법	강의자료
도입	20분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의학이 수행하는 역할을 개괄한다.	강의	PPT
전개	65분	제5공화국, 제6공화국 시기, 한국의 의료체계가 변화한 양상을 설명한다.	강의	PPT
정리	15분	전체 강의를 정리하고, 다음 강의를 예고한다.	강의	PPT

참고문헌

- 강신익, 신동원, 여인석, 황상익, 의학 오디세이, 역사비평사, 2007.
- 강혜경, 일제시기 성병의 사회문제화와 성병관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9, 2009.
- 권순형 등, '몸'으로 본 한국여성사, 국사편찬위원회, 2011.
- 김근배,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의사되기, 의과학 23-3, 2014.
- 김서형, 공중보건국과 1918년 인플루엔자, 미국사연구 31, 2010.
- 김서형, 루퍼트 블루의 공중보건 정책과 공중보건국, 미국사연구 37, 2013.
- 김서형, 생체권력과 1918년 인플루엔자, 미국학논집 42-2, 2010.
- 김성수, 신규환. 몸으로 세계를 보다: 동아시아 해부학의 성립과 발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김연희 등, 위생의 시대, 들녘, 2024.
- 김재형, 질병, 낙인: 무균사회와 한센인의 강제격리, 돌베개, 2021.
- 김재형, 박지영, 현재환 등, 우리 안의 우생학, 돌베개, 2024.
- 김창엽 등, 한국의 건강불평등,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 김환석, '의료화'에서 '생의료화'로: 정신장애의 사례, 과학기술학연구 14-1, 2014.
- 낸시 톱스 저, 이춘입 역, 세균의 복음: 1870~1930년 미국 공중보건의 역사, 푸른역사, 2019.
- 대니얼 헤드릭 저, 김우민 역, 과학기술과 제국주의: 증기선, 키니네, 기관총, 모티브북, 2013.
- 대한감염학회, 한국전염병사, 군자출판사, 2018.
- 레이샹린 저, 박승만 외 역, 비려비마: 중국의 근대성과 의학, 인다, 2021.
- 로이 리처드 그린커 저, 정해영 역, 정상은 없다: 문화는 어떻게 비정상의 낙인을 만들어내는가, 메멘토, 2022.
- 리처드 H. 슈라이옥 저, 이재담 역, 근세 서양의학사: 그 과학적, 사회적 요인들의 해석, 위드, 1999.
- 마이크 데이비스 저, 정병선 역, 조류독감: 전염병의 사회적 생산, 돌베개, 2008.
- 마크 해리슨 저, 이영석 역, 전염병, 역사를 흔들다, 푸른역사, 2020.
- 마크 호닉스바움 저, 제효영 역, 대유행병의 시대: 스페인독감부터 코로나19까지, 전 세계 전염병의 역사, 로크미디어, 2020.
- 미셸 푸코 저, 김상운 역,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난장, 2015.

- 미셸 푸코 저, 이규현, 오생근 역, 광기의 역사, 나남출판, 2020.
- 미셸 푸코 저, 홍성민 역, 임상의학의 탄생, 이매진, 2006.
- 박승만, 어느 시골 농부의 '반의사'(半醫師) 되기: 『대곡일기』로 본 1960-80년대 농촌 의료, 의사학 27-3, 2018.
- 박윤재, 일제의 의료정책과 조선 지배, 동북아역사재단, 2023.
- 박윤재,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 혜안, 2005.
- 박윤재, 한국현대의료사, 들녘, 2021.
- 박홍식, 기후변화, 흑사병 그리고 대전환, 역사학보 252, 2021.
- 박홍식, 중세 말기 유럽의 성직자와 교회에 미친 흑사병의 영향, 서양사연구 44, 2011.
- 박홍식, 흑사병과 중세 말기 유럽의 인구문제, 서양사론 93, 2007.
- 박홍식, 흑사병에 대한 도시들의 대응, 서양중세사연구, 25, 2010.
- 박홍식, 흑사병은 도시 피렌체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서양사론, 130, 2016.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70년사 1-3, 보건복지부, 2015.
- 사라 네틀턴 저, 조효제 역,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 한울, 2007.
- 사이먼 자렛 저, 최이현 역, 백치라 불린 사람들: 지능과 관념·법·문화·인종 담론이 미친 지적 장애의 역사, 생각이음, 2022.
- 사토 노리코, 신지혜, 유연실 등, 역사 속의 산파와 조산사, 모시는사람들, 2023.
- 서보경, 휘말린 날들: HIV, 감염 그리고 질병과 함께 미래 짓기, 살림, 2007.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역사문화원, 역사 속의 질병, 사회 속의 질병, 솔빛길, 2015.
- 셸던 와츠 저, 태경섭, 한창호 역, 전염병과 역사: 제국은 어떻게 전염병을 유행시켰는가, 모티브북, 2009.
- 수전 손택 저, 이재원 역, 은유로서의 질병, 이후, 2002.
- 수전 캠벨 바틀레티 저, 광명단 역, 위험한 요리사 메리, 돌베개, 2018.
- 신규환, 개항, 전쟁, 성병: 한말 일제초의 성병 유행과 통제, 의사학 17-2, 2008.
- 신규환, 국가, 도시, 위생, 아카넷, 2008.
- 신동원, 조선의약생활사: 환자를 중심으로 본 의료 2000년, 들녘, 2014.
-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한울, 1997.
- 신동원, 호환 마마 천연두: 병의 일상 개념사, 돌베개, 2013.
- 싯다르타 무케르지 저, 이한음 역, 암: 만병의 황제의 역사, 까치글방, 2011.
- 앤드류 그레고리 저, 박은주 역, 과학혁명과 바로크문화, 몸과마음, 2021.
- 앨프리드 W. 크로스비 저, 김기윤 역, 콜럼버스가 바꾼 세계, 지식의 숲, 2006.
- 얀 슌딘, 샘 빌네르 저, 신영전, 박세홍 역, 스웨덴 공중보건 250년사, 한울, 2012.

- 양정필, 한말-일제 초 근대적 약업 환경과 한약업자의 대응: '매약' 제조업자의 등장과 성장을 중심으로, 의사학 15-2, 2006.
- 에드워드 쇼터 저, 최보문 역, 정신의학의 역사: 광인의 수용소에서 프로작의 시대까지, 바다출판사, 2020.
- 에르빈 H. 아커크네히트 저, 김주희 역, 간추린 서양 의학사, 모티브북, 2022.
- 엘리엇 프라이드슨 저, 박호진 역, 프로페셔널리즘, 아카넷, 2007.
- 여인석, 의학사상사, 살림, 2007.
- 여인석 등, 한국의학사, 역사공간, 2018.
- 여인석 등, 병원의 인문학, 역사공간, 2023.
- 여인석 등, 약의 인문학, 역사공간, 2022.
- 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편, 한의학, 식민지를 앓다: 식민지 시기 한의학의 근대화 연구, 아카넷, 2008.
- 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편, 동아시아 역사 속의 의사들, 역사공간, 2015.
- 윌리엄 F. 바이넘 저, 박승만 역, 서양의학사, 교유서가, 2017.
- 윌리엄 맥닐 저, 김우영 역, 전염병의 세계사, 이산, 2005.
- 윤홍식,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1: 자본주의로의 이행의 시작, 18세기부터 1945년까지,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 윤홍식,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2: 반공개발국가 복지체제의 형성, 1945년부터 1980년까지,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 윤홍식,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3: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 이경록, 조선전기의 의료제도와 의술, 역사공간, 2020.
- 이꽃매, 한국근대간호사, 한울, 2002.
- 이방원 등, 국가의 질병 관리 역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 이안 R. 맥니리 저, 신영전, 서지은 역, 거대한 규모의 의학, 건강미디어협동조합, 2019.
- 이현주 등, 국가와 감염병, 세창출판사, 2023.
- 이현주, 논쟁으로부터 배우기: 백신 반대론자와 초기 제너백신의 효용성과 안전성 논쟁, 서양사론 149, 2021.
- 이현주, 19세기에서 20세기 증반 한국의 우두법 및 백신접종 연구에 있어 지구사적 관점의 유용성, 동국사학 65, 2018.
- 전우용, 현대인의 탄생: 해방~한국전쟁기 한국인의 질병과 위생, 의료, 이순 웅지썩크빅, 2011.
- 정다혜, 주민참여로 마을의 건강을: 1970-80년대 마을건강원 활동과 보건의료에서의 주민참여 논쟁, 의사학 31-1, 2022.
- 정다혜, 병원에서 마을로-거제 지역사회건강사업으로 본 1970년대 의료 소외지역의 지역보건 실현, 사회와 역사 129, 2021.

- 정준호 등, 공중보건의 시대, 들녘, 2024.
- 제레미 그린 저, 김명진, 김준수 역, 숫자, 의학을 지배하다: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과 제약산업의 사회사, 뿌리와이파리, 2019.
- 제임스 마컴 저, 김준혁 역, 의철학입문, 씨아이알, 2023.
- 제임스 콜그로브 저, 정세권 역, 번역국가의 탄생: 20세기 미국의 백신접종 논쟁사, 모시는사람들, 2024.
- 조르쥬 캉길렘 저, 여인석 역,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 그린비, 2018.
- 조지 로젠 저, 이종찬, 김관욱 역, 보건과 문명, 몸과마음, 2009.
- 찰스 싱어 저, 고기석, 김형태, 김희진 등역, 해부학의 역사: 고대 그리스에서 하비시대까지, 대한해부학회, 2010.
- 최은경, 일제강점기 조선 사회 결핵 유행과 대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케네스 M. 루드머러 저, 권복규 역, 치유의 시간, KMA의료정책연구소, 2023.
- 켄 키지 저, 정희성 역, 빠꾸기 동지 위로 날아간 새, 민음사, 2009.
- 김 날슨 저, 김승섭 역, 장애의 역사: 침묵과 고립에 맞서 빼앗긴 몸을 되찾는 투쟁의 연대기, 동아시아, 2020.
- 토마스 네빌 보너 저, 권복규, 최은경, 윤현배, 정한나 역, 의사 만들기, 청년의사, 2024.
- 토마스 네빌 보너 저, 유은실 역, 여의사의 역사, 한울, 1996.
- 토마스 N. 보너 저, 권복규 등역, 의사 만들기, 청년의사, 2024.
- 토마스 매큐언 저, 손명세, 정상혁 역, 의학의 한계와 새로운 가능성, 한울, 2003.
- 폴 스타 저, 이종찬 역, 의학, 정치 돈-미국 의료의 역사사회학, 한울, 2023.
- 프랭크 스노든 저, 이미경, 홍수연 역, 감염병과 사회: 페스트에서 코로나19까지, 문학사상, 2021.
- 프레데릭 F. 카트라이트, 마이클 비디스 저, 김훈 역, 질병의 역사, 가람기획, 2004.
- 피터 콘래드 저, 정준호 역, 어쩌다 우리는 환자가 되었나: 탈모, ADHD, 갱년기의 사회학, 후마니타스, 2018.
- Ackerknecht, Erwin H., *Medicine at the Paris Hospital, 1794-1848*,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7.
- Bynum, William F. and Roy Porter eds., *Companion Encyclopedia of the History of Medicine*, Routledge, 2004.
- Bynum, William F., Anne Hardy, Stephen Jacyna, Christopher Lawrence, E. M. Tansey, *The Western Medical Tradition: 1800-2000*,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Caplan, Arthur L., Hugo Tristram Engelhardt(Jr.), James J. McCartney eds., *Concepts of Health and Disease: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Addison-Wesley, 1981.
- Conrad, Lawrence I., Michael Neve, Vivian Nutton, Roy Porter, Andrew Wear, *The Western Medical Tradition: 800 BC to AD 1800*,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Cunningham, Andrew and Perry Williams eds., *The Laboratory Revolution in Medici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Davis, Audrey B., *Medicine and Its Technology: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Medical Instrumentation*, Greenwood Press, 1981.
- Davis, Audrey B., "Life Insurance and the Physical Examination: A Chapter in the Rise of American Medical Technology,"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55-3, 1981, pp. 392-406.
- Duffin, Jacalyn, *Lovers and Livers: Disease Concepts in History*,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5.
- French, Roger, *William Harvey's Natural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Granshaw, Lindsay and Roy Porter, *The Hospitals in History*, Routledge, 1990.
- Harrison, Mark, *Disease and the Modern World: 1500 to the Present Day*, Polity 2004.
- Jewson, Nicholas D., "The Disappearance of the Sick-man from Medical Cosmology, 1770-1870," *Sociology* 10-2, 1976.
- Johnston, William, *The Modern Epidemic: A History of Tuberculosis in Japan*,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1995.
- Kim, Sonja M., *Imperatives of Care: Women and Medicine in Colonial Korea*,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9.
- Ludmerer, Kenneth M., *Learning to Heal: The Development of American Medical Educati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5.
- Packard, Randol M., *The Making of a Tropical Disease: A Short History of Malaria*,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7.
- Patterson, James T., *The Dread Disease: Cancer and Modern American Cultur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 Rogasky, Ruth, *Hygienic Modernity: Meanings of Health and Disease in Treaty-Port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 Porter, Dorothy, *Health, Civilization, and the State*, Routledge, 1999.
- Reiser, Stanley J., *Medicine and the Reign of Techn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 Risse, Guenter B., *Mending Bodies, Saving Souls: A History of Hospitals*,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Rosenberg, Charles E., *The Cholera Years: the United States in 1832, 1849, and 1866*,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 Rosenberg, Charles E., and Janet Lynne Golden eds., *Framing Disease: Studies in Cultural History*, Rutgers University Press, 1992.

- Rosenberg, Charles E., *The Care of Strangers: The Rise of America's Hospital System*,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7.
- Temkin, Owsei, *The Double Face of Janus and Other Essays in the History of Medicin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7.
- Tilley, Helen, *Africa as a Living Laboratory: Empire, Development, and the Problem of Scientific Knowledge, 1870-1950*,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1.
- Young, James Harvey, *The Medical Messiahs: A Social History of Health Quackery in 20th Century America*,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5.

기본의학교육 의사학 학습성과집

발행일 | 2025년 2월 28일
발행처 | 대한의사학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의회관 302호 인문사회이학과
이메일 | medhistory@hanmail.net
홈페이지 | <https://www.medhist.or.kr/>
전화 | 02-3147-8306
팩스 | 02-3147-8480
펴낸곳 | 경성문화사
전화 | 02-286-2999
ISBN | 979-11-961436-2-6 (93510)

© 대한의사학회, 2025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